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의 『바다의 딸』에 나타난 갈리시아의 자연과 인간*

송 선 기
(조선대학교)

❖ 국문초록

연구를 통해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의 『바다의 딸』은 스페인 갈리시아의 소도시 묵시아와 피니스티에레 곶의 자연의 구성 요소들인 바다의 움직임, 해변의 풍경, 폭풍우,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 등을 배경으로 하는 갈리시아인들의 생활상의 세밀한 묘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작품에 묘사되는 갈리시아의 자연은 그곳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과 꽃들의 향기로 가득한 어부들과 농부들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연 환경묘사와 더불어 갈리시아인들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 유산의 일부인 망자의 장례과정을 통해 가톨릭의 종교의식과 미신적 제의식이 혼합된 갈리시아만의 독특한 문화가 융합된 지역임도 확인시켜준다. 또한 작가는 갈리시아 어부들의 과도한 음주문화와 주신제나 살주식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갈리시아가 오래되고 심오한 풍속의 땅이고, 특별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땅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렇듯 로살리아는 갈리시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언제나 존재하면서도 깊이 있게 조명되지 않았던 자연환경과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 그림으로써 갈리시아의 외적 현실과 갈리시아 정체성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본 논문은 201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주제어 :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바다의 딸』, 갈리시아, 자연, 환경, 문화, 풍습

1. 들어가는 말

아름다운 전원적 정서와 더불어 바다와 접해 해양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 이베리아반도의 북서부 갈리시아¹⁾는 푸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난하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과 유서 깊은 민속을 지녔으며 역사·지리·문화·환경적으로 스페인의 여타 지역들과 구분되는 색다른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러한 환경은 내부적으로 가족제도나 종교적 측면, 그리고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독특한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또한 갈리시아는 스페인 문학 태동기의 수많은 음유시인들을 배출한 시의 본향이며, 스페인 예술의 근원지이기도 하지만 갈리시아 인들이 재능을 꽃피웠던 분야는 단연 문학으로, 이 지역 출신의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역 현실을 묘사함으로써 스페인 문학지평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갈리시아 지역 정서의 문학적 표출의 대표적인 작가들 중의 하나로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Rosalía de Castro (1837~1855)²⁾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³⁾ 그녀는 19세기 스페인 문학개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특히 구스타보 아돌포 데 베케르와 더불어 현대 스페인 시의 선각자로 평가 되고 있다.⁴⁾ 생애의 대부분을 마드리드에서 보냈으나,

1) 갈리시아는 비고, 코루냐, 루고, 오렌세, 폰테베드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중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이다. 동쪽으로는 레온 과 아스투리아스 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포르투갈, 그리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해있고, 대서양은 수많은 만(灣)들을 통해 육지로 침투해 있다.

2)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는 1837년 2월 24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태어나 1885년 7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3) 이외에도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라몬 마리아 델 바예-인클란의 많은 작품들이 보여주는 지역적 배경과 더불어 갈리시아 세계의 현실은 문학을 통해 그려진다. 또한 에밀리아 파르도 바산 의 『나의 대지 De mi tierra』 도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갈리시아의 험준한 산악과 바다 그리고 땀 흘리는 농부들과 어부들의 일상과 이 지역만이 간직하고 있는 신비한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항상 자신의 고향 갈리시아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였다고 전해진다.

로살리아는 슬픔과 우수로 넘치는 언어로 토착적인 정서를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표출한 시와 수필 그리고 소설작품들을 써왔다. 그녀의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애착은 갈리시아어로 씌여진 『갈리시아의 노래』에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갈리시아어와 갈리시아 문화의 수호를 위해 노력한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는데, 1963년 출판 100주년이 되는 날을 계기로 “갈리시아 한림원(Real Academia Gallega)”에 의해 ‘갈리시아 문학의 날’로 제정되기도 하였다.⁵⁾ 그녀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시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왔지만 소설가로서의 역할과 기여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⁶⁾

본 연구의 목표는 작가가 쓴 3편의 소설 들 중 첫 번째 소설이었으며, 그녀가 거주한 적이 있었던 갈리시아의 소도시 묵시아(Muxía)와 피니스티에레꽃(Cabo Finistierre)의 풍경을 묘사하여 갈리시아라는 지역을 가장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다의 딸 *La hija del mar*, 1859』에 드러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자연 환경과 전통적 가치, 미신적 제의식과 풍습들에 대해 조명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가 어떻게 갈리시아의 자연과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묘사하며, 갈리시아적 특성을 드러내는지 밝히는 작업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4) 로살리아가 집중적인 작품 활동을 한 시기를 중심으로 보면 문예사조사에서 후기 낭만주의에 속하며 구스타보 아돌포 베케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서정적인 시 세계를 창조하였고, 강렬하고 순화된 정서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5) http://es.wikipedia.org/wiki/D%C3%ADa_de_las_Letras_Gallegas

6) 그녀가 쓴 3편의 소설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다의 딸 *La hija del mar*, 1859』, 『플라비오 *Flavio*, 1861』, 『푸른 장화의 신사 *El caballero de las botas azules*, 1867』 등이 있다.

7) Pablo de Barco, “La condición femenina como superación de la novela del Romanticismo(Rosalía de Castro)”, p.73.

II. 로사리아의 작품들과 삶 그리고 『바다의 딸』

1. 로살리아의 작품들과 삶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여류작가는 자신의 고향의 언어인 갈리시아어로⁸⁾ 이 지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갈리시아의 노래 *Cantares de gallegos*, 1863』를 통해 수세기 동안 사장되어 왔던 갈리시아어를 현대적 언어로 재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갈리시아 문학의 르네상스⁹⁾를 선도하며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갈리시아 지방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 즉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잎새들 *Follas Novas*, 1880』에서도 로살리아는 여성들의 소외와 슬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 글을 써 그 지역 사람들과 그녀의 내적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카스티야어로 쓴 『나의 어머니 *Mi madre*』, 1863)가 있으며, 『사르 강변에서 *En las orillas del Sar*』(1884)는 그녀의 대표적인 서정시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쓴 작품으로 시인 자신의 내적 고통을 갈리시아의 외부 현실로 투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녀의 시와 소설을 관통해 흐르는 가장 특징적 요소들로 문학사가들은 고통, 부드러움, 잿빛의 슬픔, 우수, 등을 들고 있다.¹⁰⁾ 이러한 요소들은 그녀의 문예사조적 성향이 낭만주의에 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일생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 이력이나 생애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하다.

전기 작가 엘비라 마르틴은 “그녀의 탄생은 신의 형벌이었다. 그녀는 생을 누릴 권리가 없이 태어났다.”¹¹⁾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8) 이때의 갈리시아는 스페인의 중앙부에서 완전히 벗어난 변방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그녀가 갈리시아어로 글을 쓰면서 갈리시아의 문학과 예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녀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구조나 사상과 관련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특히 당시의 갈리시아어는 단순히 하나의 방언에 불과했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작가의 이 작품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9) Justo G. Beramendi, *El nacionalismo gallego*, p.19.

10) *Panorama de los escritoras españolas*, vol. II, p.109.

11) Elvira Martín, *Tres mujeres gallegos del siglo XIX*, p.89.

기록들은 미궁에 쌓여 있는데 산티아고의 왕립 병원은 1837년 2월 24일 세례를 받았으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아이로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11세가 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시들 속에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녀의 상심이 항상 현존 했다고 한다.¹²⁾

이렇듯 로살리아는 유년 시절부터 삶을 향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부여받지 못한 채 세상에 태어난 사생아였다. 그녀는 갈리시아 파드론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귀족 집안 출신의 테레사 데 카스트로와, 신학생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잉태된, 결혼에 이를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 인생 자체가 순탄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였으나 결국 결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보수적인 귀족가문의 분위기와 정서상 집에 머물지 못하고 로살리아의 어머니 테레사는 집을 나가 아이를 낳은 후 대모의 손에 맡기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다. 그 후 8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모녀는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파란 많은 유년시절은 그녀의 작품들에 드러나는 우수, 고독, 슬픔, 외로움 등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살리아의 탄생과 관련된 생애의 일부분을 후대의 갈리시아 출신의 소설가 카밀로 호세 셀라는 그의 사실과 허구가 뒤얽힌 난해하기로 유명한 작품 『두 망자를 위한 마주르카 *Mazurca para dos muertos*, 1983』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로빈 레보산은 책에서 이야기 하듯 로살리아가 산티아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파드론에서 태어났다고 추정하는데, 한 사제에게 명예를 더럽힌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파드론에서 데려왔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저 어린 여자 아이가 스페인에서 가장 위대한 여류 시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놀지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녀는 거의 죽었을 것이다.¹³⁾

약간은 문학적인 요소가 개입된 표현으로 보이지만 탄생 배경상의 문제로

12) *Historia de las mujeres en España*, p.437.

13) Camilo José Cela, *Mazurca para dos muertos*, p.55.

인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과 험담들로, 이후 그녀가 겪었을 삶의 고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작가의 어머니가 실제생활에서 겪었던 아이의 출산과 이후 떠나버린 남편으로 인해 받은 고통과 고난의 삶의 과정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바다의 딸』의 중요 등장인물들 중의 한 사람인 테레사라는 인물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테레사는 작가 로살리아의 모친이었던 테레사 데 카스트로(Teresa de Castro)와 동명일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그녀가 처한 상황이나 삶의 이력을 비교해 보면 작가의 어머니의 분신임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설의 “자서전적 성격은 그녀의 개인적 삶의 이력에서 다소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⁴⁾는 한 비평가의 주장은 의미 있어 보인다.

이러한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종합해 비추어볼 때 “『바다의 딸』은 작가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의 자극이 합류한 결과로 나타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탄생하면서 부터 엄마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데에서 오는 작가 자신이 경험했던 슬픔과 고통의 자극이며, 또 다른 하나의 자극은 사회적 성격의 자극인데, 그것은 당대의 버림받은 여성들의 상태와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래서 이 작품은 로살리아라는 작가의 탄생과 관련된 신화이며 삶의 이력이고 경험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작품 『바다의 딸』에 대한 스케치

본 연구의 텍스트인은 『바다의 딸』은 작가가 22세 때에 출간된 작품으로 비평가들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사실 작가의 문학적 궤적이 시 작품들에 집중된 만큼, 다른 장르인 소설분야에서의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구성의 치밀성과 줄거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하나의 사실에 대한 묘사가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자전적 측면이 강하게 반영

14) Leigh Mercer, “Shadowing the Gothic: Rosalía de Castro's *La hija del mar* and Benito Pérez Galdós *La sombra*,” p.39.

15) http://www.cervantesvirtual.com/portal/romanticismo/actas_pdf

된, 그래서 작가 자신이 서술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 대해 캐슬린 마치는 “텍스트의 성숙성이 결핍된 명백한 증거가 있는”,¹⁶⁾작품으로 평가하고 리카르도 카르발로 칼레로는 “소설이 피상적이고, 한심스러우며, 장르가 멜로드라마풍의 대중소설”¹⁷⁾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카를로스 루이스 실바는 로살리아의 이 작품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실바는 “교정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결점 투성이의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소설가가 되기 이전의 독서, 사랑, 인간관계, 사회적 관심 등을 보여주는 작품”¹⁸⁾이라고 평가하여 형식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이 여류 작가가 가졌던 사회적 관심의 표현의 한 부분으로서, 이 소설이 여성 작가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페미니즘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¹⁹⁾

한편 리 머서는 『바다의 딸』이 출간 된지 100년이 지난 후 엘렌 식수의 언급, 즉 “19세기 스페인 문학에서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여성성을 설명한 글은 없었다. 『바다의 딸』은 그런 예외 중 하나이다.”라는 평가를 근거로 카스트로의 소설을 당대 여성주의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⁰⁾ 이렇듯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지만 19세기 스페인 문학개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작품을 줄거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안개와 낭만적 슬픔이 깔린 무히아라는 갈리시아 어촌마을의 어부 로렌소

16) March, Kathleen. De musa a literata: El feminismo en la narrativa de Rosalía de Castro, p.50.

17) Ricardo Caballo Calero, *Aportaciones a la literatura gallega contemporánea*, p.195.

18) Carlos Luiz Silva, *Reflecciones sobre La hija del mar*, p.367.

19)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는 작품의 서문에서 19세기 당대 여성들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들 여성들에게 불멸의 왕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당대 여성들의 상태를 ‘19세기라고 불리는 부자들의 식탁에서 자유의 빵부스러기를 줍는 새로운 라사리오들’로 표현하여 여성들에게 점차적으로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소외된 입지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설파하고 있다.(Rosalía de Castro(1986), en el Prólogo de 『*La hija del mar*』, pp.16-17)

20) Leigh Mercer, “Shadowing the Godthic: Rosalía de Castro's *La hija del mar* and Binito Pérez Galdos's *La sombra*,” p.40.

가 동료들과 더불어 고기잡이를 다녀와 뒷마무리를 하던 중 바위위에 놓인 상자에 들어있는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태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아이였다. 이 아이는 마을의 18세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고아로 자라 결혼하였지만 남편에 의해 버림받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었던 자신의 고향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는 테레사는 여인이 양녀로 입적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 엄마와 입양 딸의 삶의 고독과 아픔의 흔적들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중심축은 바이런적 주인공인 알베르토 안소트이다. 그는 소설 속 세 명의 중요 여성 등장인물인 테레사, 에스페렌사, 칸도라와의 관계 속에서 빼어난 외모로 그녀들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이 사랑의 감정에서 시작된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남자와 여자와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성을 취하고 아이를 낳고 버리고 강간하는 성적인 폭력을 일삼는다. 예를 들어 안소트는 아내인 테레사를 버렸다가 11년 후에야 돌아온다. 그 사이에 테레사는 안소트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바닷가 해일과 파도의 회오리 속에서 잃게 된다. 그 후 테레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여자 아이 에스페란사를 데리고 와 기르며 살아간다. 11년이 지난 후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안소트는 법률상 양녀인 에스페렌사를 구속하기 위해 아내 테레사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

한편 칸도라는 임신 초기에 버려진 안소트의 연인이었고 에스페란사는 안소트와 칸도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하지만 안소트는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이 아버지임을 부인하고 이 어린 딸을 바닷가 바위위에 죽게 버려두었지만 구조되어 테레사에게 입양된 것이다. 이후 안소트의 행위에 절망한 칸도라는 십 수 년 동안이나 안소트를 찾으러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작품의 말미에서 결국 실성한 상태로 그를 만나게 된다. 일순간이었지만 정신이 돌아온 틈을 타 안소트에게 에스페란사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에스페란사는 이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충격과 연인 파우스토의 죽음으로 인한 2중의 충격으로 미쳐버리고 양어머니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이렇듯 『바다의 딸』에서 여자들은 한 남자에 의해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버려져서 홀로 살아가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 장의 타이틀이 없는 무제의 장에서는 안소트와 테레사와의 만남이 기술된다. 11년 만의 만남 후에도 또다시 감금과 멸시로 인격을 유린당하고 사무치는 모욕을 당했던 그녀는 복수하러 안소트 앞에 나타난다. 하지만 테레사에게 안소트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실패였음을 인정하며 이제 행복하게 호화로운 자신의 저택에서 함께 살자고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안소트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깊었던 테레사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만, 등장인물 앙헬라와 에스페란사가 그를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으니 죽음을 면하려면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광장에서 해적질, 암살, 방화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진다. 마지막 “결론”의 장에서는 모든 것에 절망한 에스페란사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그녀가 진정한 바다의 딸임을 얘기하며 작품은 끝이 난다.

III. 『바다의 딸』에서의 갈리시아의 바다와 자연

2장 전체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갈리시아 해안 지역의 자연 현상인 바다의 움직임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더불어 식물들 꽃들에 대한 묘사로 가득하다. 강력한 바람이 얼마 되지 않는 이곳 사람들의 생활 원천인 과수원의 나무들이나 농작물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과정, 해안을 때리고 어부들이 사는 움막들을 위협하는 거칠고 무서운 파도, 짙은 안개와 가난한 뱃사람들의 생활환경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테레사”라는 타이틀의 장에서는 땅 끝이라는 의미의 ‘피니스테레’의 안개 자욱하고 음습한 분위기 묘사와, 포효하는 바다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연에 대항해 싸우며 살아가는 어부들의 삶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거기에다 한편으로는 갈리시아 자연의 일부인 산과 들의 양분 없는 토양, 식물이나 채소들도 잘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의 성질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피니스테레(Finisterre)²¹⁾의 사나워진 바다의 푸르고 거품 많은 파도들

은 고풍스러운 ‘바르카 성녀님의 성전 Nuestra Señora de la Barca’을 둘러싼 바위들을 때린다. 맑지만 차가운 겨울의 태양이, 관목도 채소조차도 싹을 틔울 수 없는 화강암과 모래투성이의 산들, 메마른 마을들의 황량하고 거친 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 없는 침묵과 수수께끼 같은 소문들이 아무 곳이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퍼진다.(35-36).²¹⁾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의 실체적이고 뼈저린 경험은 ‘바다의 딸’이라고 불리는 테레사라는 등장인물의 몫이다. 테레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편 안소트에게 버림받고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즐겁게 노는 동안 갑자기 강력한 돌풍과 함께 밀어 닦친 파도에 휩쓸려 아이가 모래사장애 묻혀 사라져 버린다. 그녀의 절규와 울부짖음에서 갈리시아의 자연인 바다에 대한 공포와 갈리시아인들의 삶의 환경을 느껴볼 수 있다.

내 아들! 내 아들! 그녀는 아이를 구하러 바다로 뛰어들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되버린다. 내 아들..., 내 죄 없는 불쌍한 아들..., 내 살을 저미는 아픔의 아들! 그녀는 모래 사장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녀가 기절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순간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았다. 하염없는 눈물이 그녀의 얼굴위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초라한 움막으로 가는 슬프고 어두운 교차로를 그녀와 함께 동반해준 유일한 동무는 천둥과 번개뿐이었다.(34).

이렇게 자연의 일부인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천이

21) 전설에 의하며 네델란드 혹은 영국의 배 한척이 피니스테레 해변을 지나고 있을 때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할 순간에 있었다. 승무원들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 중에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상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십자가상이 물에 닿는 순간 폭풍우가 멈췄고, 그 배에 있던 성자가 자신의 여생을 세상의 끝인 이곳 카보 데 피니스테레에서 보낼 징조라고 해석하였고 바로 아래에 있는 카바나스 해변으로 올랐고 이후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https://es.wikipedia.org/wiki/Santo_Cristo_de_Finisterre

22) 이하 작품 인용은 Rosalia de Castro(1986), 『La hija del mar』, Madrid, Ediciones Akal.로 하며 쪽수만 표시한다.

고, 슬프이며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독이다. 코스타 델 라 무에르테의 혼란스런 풍경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장면에서 등장인물 테레사와 에스페란사는, 한 사람에게는 남편이고 한 사람에게는 생부인, 안소트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들을 구속하려 하자 바다로 도피한다. 황량한 해변에서 바다를 마주하는 테레사는 파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래에 입을 맞추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면 아주 쉬울 것이라 상상한다. 테레사에게 폭풍우와 돌풍이 몰아치는 자식을 앗아간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평온해진 바다는 그녀를 안아주는 포근한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고 궁극적으로 그녀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처럼 보인다.

그녀는 정말로 망령 들린 사람처럼 오랜 시간동안 해변의 이쪽저쪽을 뛰어 다닌다. 그 후에는 숨이 차고 거의 원기가 다해 시원한 파도가 희미하게 그녀가 있는 쪽으로 약하게 다가와 부서지도록 모래위에 팔을 펼치고 드러눕는다. 그리고는 외친다. 이제 내 아들도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만 해! 내 남편은 나를 버렸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차가운 시체에 불과해!(...)이제 나는 죽어야 해!(73).

그녀는 격한 감정이 지배할 때 자신은 죽어야한다고 외치지만 그 바다로부터 힘을 얻고 원기를 얻어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됨으로써 바다는 피폐한 영혼의 치유와 휴식의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아래의 장면에서도 우리는 갈리시아 바닷가의 무서운 자연현상과 직접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난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폭풍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폭풍우와 우리가 닮아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무시무시한 폭풍우야! (...)번개가 그들의 머리위에서 번쩍이고, 폭우가 쏟아지고, 거칠고 세찬 바람이 너럭바위 주변에서 웅웅거리고, 끝없는 굉음에 휩싸인다. 저 가엾은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분노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87).

한편 전술한 에스페란사는 그녀의 양어머니인 테레사와의 갈등 끝에 집에

서 뛰쳐나가 바닷가에 서있는 그녀를 작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서 그녀들에게, 혹은 갈리시아인들에게 바다가 갖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바다는 그녀의 한 부분이고, 행복이고, 꿈 들 중의 꿈이고, 그녀의 유년 시절을 아름답게 한 환상이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꽃들을 사랑하듯이, 혹은 초원의 목초들을 적서주고 조용히 흐르는 강을 사랑하듯이;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잉태해 낼 만큼 위대하다. 그녀는 푸르른 해초들과 노닐고 태양 빛이 파도위에 떨어질 때의 그 반짝임을 흠모한다.(76).

이렇듯 바다는 아름다운 꿈의 근원이고 환상이며 사랑과 연모의 대상이기도 하다. “고녀”라는 타이틀의 장에서는 젊은 청년들인 등장인물 파우스토와 에스페란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위의 십자가 암벽(Peñón de la Cruz)에 올라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 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에스페란사는 바다의 딸답게 완벽하게 침착하며 거친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표현하지만 파우스토는 대자연의 무서운 움직임에 위축이 되어 기절한다.

질은 안개, 그리고 태양이 떠오를 때 안개로부터 피어나는 냄새가 아침의 아름다운 색채를 잠재우고 땅자의 얼굴을 덮는 천처럼 무덤 같은 저 벌거벗은 땅을 덮어 버린다. 그곳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진 전리품 같은, 해변에 펼쳐진 조그만 마을들을 삼켜 버릴 듯이 웅덩이거리는 바람 소리와 출렁거리는 파도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의 오두막은 유명한 바르카 성녀 성지²³⁾가까이의 광대한 벌거벗은 바위로 둘러싸인 조금

23) 약 11세기경에 축조된 “바르카 성녀 성지”(Santuario de Nuestra Señora de la Barca)는 무히아의 조그만 마을에 위치하는데 이 후 수차례의 증축과 개축에 의해 현재의 성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코루냐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성당들 중의 하나인데 해마다 9월 두 번째 주일에 순례제가 개최되기도 한다. 바다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바닷가 바위위에 서있는 이 교회는 전설에 의하면 바다로부터 동정녀 마리아가 용기와 힘을 준 천사들에 의해 밀려 올라온 배 모양의 바위가 놓여있다. 성모마리아의 출현은 산티아고가 이베리아반도를 복음화 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으나 복음화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복음전파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바닷가 선박바위 가장자리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이 작품의 주요 공간적 지리적 배경을 이룬다.

만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다.(36)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격렬한 구도와 황량하고 음울한 분위기와 직면한다.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피어오르는 안개, 안개로부터 피어나온 냄새가 아름다운 아침의 색채를 퇴색시키고, 무덤으로 비유되는 삭막한 갈리시아의 대지를 덮는다는 묘사를 통해 이 작가의 시적이고 신비로운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작품은 스산한 잿빛 환경이 지배하는 갈리시아의 풍경과 장엄한 바다의 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 비전은 자연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생명력 있고 신비로운 현실로 변화시킨다.”²⁴⁾ 또한 로살리아는 구체적으로 ‘죽음의 해변’²⁵⁾ 부근의 카보 데 피니스테레의 풍경과, 성난 바다의 환경 그리고 그 바다의 포효에 불가항력의 나약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대비시켜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갈리시아에 혹은 스페인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가장 황량하고 슬픈 풍경들 중의 하나인 저 풍경은, 고독에 익숙해 있고 떠돌이 생활을 한 그 여자 아이의 캐릭터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 그곳에서 수는 없이 많은 선박들이 분노한 파도의 장난감이 되어왔고, 해변으로 지나간 폭풍우와 슬픈 해난사고의 흔적조차도 남김없이 배들은 한 순간에 가벼운 깃털처럼 물의 표면에서 사라져 버린다.(37-38).

이렇게 ‘죽음의 해변’의 성난 바다가 포효하며 배들을 가라앉히고 젊은 어부들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시 한 번 바다는 인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며 분노의 상징이고 슬픔과 고통과 고독의 근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갈리시아의 바다는 거친 자연현상으로 인한 수많은 해난사고로 그 명성이 자자한 곳이기도 하다.²⁶⁾

<http://www.fotonazos.es/2013/12/el-santuario-de-nuestra-senora-de-la-barca-en-muxia/>.

24) http://www.biografiasyvidas.com/biografia/c/castro_rosalia.htm

25) ‘죽음의 해변’은 코루냐 지방의 연안지역으로 피니스테레에서 말피카 데 베르간티노스까지를 포함한다.

에우헤니로 카레 알다오는 1920년대 말 ‘죽음의 해변’이라는 이름을 조명한 초기 몇 사람들 중의 한 사람 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향해 안정성 부족에서 이 이름이 유래했다고 확신한다.²⁷⁾ 이렇듯 이곳의 자연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특징들과 대조를 이루는 자연, 즉 온갖 종류의 나무들과 식물들 그리고 꽃의 향기로 가득한 천국의 모습으로 조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작가 로살리아의 독창성이다.

무히아의 마을로부터 4레구아 쯤 떨어진 구 모라이메 쪽으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 오렌지 나무들과 레몬나무들, 키 큰 보리수나무들 그리고 그윽한 아카시아 꽃과 향기로 둘러싸인 집이 한 채 있고(...)저 저택의 귀족풍의 응접실에만 부와 호화로움과 우아한 세련된 즐거움이 있다.(109-110).

이렇듯 작가는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북서쪽 갈리시아의 풍광을 대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 폭풍우와 수도원 그리고 어부와 선박들에 이르기까지 갈리시아 사람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함께일 수밖에 없는 어촌사회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자연 풍경을 글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IV. 『바다의 딸』에 나타난 제의식을 통해 본 갈리시아인들

갈리시아는 전원적인 생활양식과 어부들과 농부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그들의 문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역이다. 지리적 상황의 특수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켈트인들의 영향으로 스페인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문화와 역사,

26) 그곳 주변의 사람들은 수많은 조난자들의 증인이었는데 최근까지 100여 년 동안 카메에 에서 카마리냐스 까지의 해변에서 갑작스런 질은 안개, 강력하게 흐르는 순간 유속, 수많은 난파선에 의한 좌초 등으로 60여척 이상의 대형선박이 좌초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2002년 11월 좌초된 그리스의 유조선 프리스티지호도 해상사고도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27) <https://www.youtube.com/watch?v=swsEtokT3FQ>

그리고 전통을 갖고 있다. 비록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왔지만 켈트문화가 민중적 전통에서 깊은 흔적을 남겼다. 특히 민간신앙은 대중의 정신 속에 영속 되어 왔고, 집단 무의식 속에 보존되어지고 있다.

한편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신적 제의식과 가톨릭적 의식의 혼재를 목격할 수 있다. 어부들에게는 맹목적인 미신에 대한 믿음이 팽배해 있다. 사람들은 미신을 부모나 주변의 가르침을 통해 유년시절부터 받아들인다. 조금 씩 조금 씩 자신의 사상으로, 풍습으로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삶의 부분으로 형성되어간다. 오늘날까지도 일군의 미신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기독교의 사상이나 의식과 섞여있다.²⁸⁾

갈리시아 사람들의 미신적 제의식과 이교도적 행위의 일부를 우리는 제 14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등장인물 파우스토의 죽음에 대해, 사실은 질병이 원인이었으나 마을사람들은 그가 악귀가 씌여 죽었다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묘지에서 다시 살아나와 타인들에게 저주로 악귀를 쓰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악귀가 쓰인 부정한 시체는 무덤에 안치할 수도 없고, 또 무덤을 나와 ‘저주의 눈’을 흘기며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야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파우스토의 아버지 로렌소에게 건의하고 이러한 미신에 이성을 잃은 이 아버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에 동의한다.

(...)당신의 아들은 교회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나중에 당신의 죽은 아들이 수의를 둘러쓰고, 우리들의 집들을 가로 질러 지나고,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저주의 눈(un mal de ojo)’²⁹⁾를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옮기

28) http://is.muni.cz/th/110308/ff_b/Bakalarska_prace.pdf. p.19.

29) ‘저주의 눈’은 악마의 개입이나 도움을 받은 어떤 인간이 그 시선의 영향으로 사람이나 동물들 혹은 재산에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어떤 물질을 파괴할 수 있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미신은 여러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리시아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갈리시아에서 이는 가장

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의 시체를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깁시다; 후에,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휴식을 취하는 밤에 우리가 가서 그 시체를 숨겨가지고 가 바다에 버립시다(...)바다가 악마가 쓰인 시신을 다시는 돌려주지 않도록!(158).

결국 파우스토의 시체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수장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가톨릭적 종교의식과 미신적 제의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갈리시아 사람들의 특이한 장례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망자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가톨릭의 의식인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미신적 제의식을 따른다. 또한 이 제의식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한 사람도 영성체나 고해성사, 혹은 미사 때와 같은 가톨릭의 종교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영대(estola)를 두르고 있다.

영대를 두른 남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고,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로렌소! 시간이 되었으니, 다가가서 당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포옹을 하세요 라고 큰소리도 외친다. 호느낌과 슬픔에 젖은 호느낌이 간간히 들려오고 고통의 목소리는 오장육부를 찢는다. -안녕! 사랑하는 아들 영원히 안녕(...)에스페란사는 시체를 향해 돌진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체가 결코 되돌아 와서는 안 되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167).

결국 파우스토의 시체를 등장인물 테레사의 집에다 안치해 두었다가 수장절차를 진행시킨 것이다. 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안소트의 저택에 잡혀 있다 풀려나온 에스페란사가 흰옷을 입고 미친 듯이 죽은 연인 파우스토를 찾아다니다 마을사람들에 의해 그의 사체가 수장되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녀는 파우스토의 시체를 향해 달려들고, 그들은 그녀의 출현을 파우스토의 혼령이 깃든 귀신의 출현이라고 외치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미신적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곳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여자에는 귀신이 씌었음에 틀림없어; 그토록 오랜 동안의 불가사의한 실종 뒤에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단 말인가? 파우스토가 죽은 순간 그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못된 정령을 가져왔단 말인가? 아마도 그의 혼령을 통해 온 것 일거야(...) 그녀를 내버려 둡시다; 기도 후에 우리는 그녀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녀가 우리들에게 망자의 혼령을 뿌릴 수도 있으니까.(160).

결국 에스페란사는 연인 파우스토의 죽음에 의한 충격으로 미쳐버렸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착란현상을 망자의 악귀가 씌었을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으며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귀신이 붙은 악마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이렇듯 마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의치면서 한편으로는 미신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테레사가 안소트의 저택에 불을 질러 태우는 광경이 목격된다. 이 화재도 마을 사람들은 지옥의 저주로 불이 났다고 생각한다. 갈리시아 사람들의 토속신앙과 미신적인 것에 대한 묘사는 계속된다.

그 날 밤은 불쌍한 어부들에게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밤이었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고, 저 황량하고 슬픈 마을위로 역병을 일으키는 비처럼 불행은 계속 멈추지 않았다. 그때 놀란 어부들은 자신들의 지저분한 수많은 움막들을 발견했고, 화재로 인해 밝게 비치지는 움막들을 보았다. 불길은 계속 커지고, 퍼져 나가고 그 화염은 저 불행한 마을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 만 같았다. 지옥의 분노가 우리를 쫓아와요! 라고 저 불운한 사람들이 외쳤다. 그 사이에 연기가 엄청난 나선형을 띄면서 타는 듯한 불꽃으로 사방으로 퍼져가고 있었고, 불경스런 미신을 믿는 자들을 마중 나가는 것 같았다.(167-168).

앞의 장면은 테레사가 안소트의 저택을 태우는 광경이다. 화재로 인한 재난

의 상황을 사람들은 지옥의 분노와 저주로 인한 신의 형벌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미신은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편협하며 집단 이기주의의 최극단”(168)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신적인 제의식의 존재는 갈리시아의 부정적이지만 전통적 유산의 일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8장 “알베르토”에서는 어부들의 좋지 않은 풍습인 절제 없는 과음에 대한 신랄한 묘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갈리시아 어부들의 과도한 음주문화와 주신제에 대한 작가 나름의 비판적 관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들에 들어나는 등장인물들, 혹은 갈리시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갈리시아의 외적현실과 일체화 되고 있다.

손에서 손으로 술병들이 엄청난 속도로 손에서 손으로 돌고 돌았고 살주식(las libaciones)³⁰⁾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머리 속은 부드러운 와인의 영향에 굴복하여 갈수록 이성을 잃어가고 만취로 인한 섬망 상태에 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자신들의 모자들을 하늘에 던지고 바다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파티는 이제 주신제(Orgia)로 퇴락해 가고 있었다.(95)

이렇듯 갈리시아는 오래되고 심오한 풍속의 땅이고, 미신들과 전설들의 땅이며, 넘쳐나는 축제와 세속적 제의식 그리고, 특히 산티아고의 길의 성지순례로 유명한 특별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땅이기도 하다. 그래서 갈리시아는 스페인의 다른 지역 공동체들과는 대조되는 문화적 종교적인 측면의 고유하고 명백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가톨릭 신앙과 뿌리 깊은 미신과 우상숭배가 동시에 공존하는 특별한 땅이라는 것이다.³¹⁾

30) 고대인들이 신을 기리기 위해 술을 마신 다음 땅에 뿌린다는 제식.

31) http://is.muni.cz/th/110308/ff_b/Bakalarska_prace.pdf.pdf, p.5.

V. 맺는말

살펴본 바와 같이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의 『바다의 딸』은 작가가 거주한 적이 있었던 갈리시아의 소도시 묵시아와 피니스티에레 곳의 자연의 구성 요소들인 바다의 움직임, 해변의 풍경, 폭풍우,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 등을 배경으로 하는 어부들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성난 파도와 폭풍우가 포효하며 배들을 가라앉히고 젊은 어부들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갈리시아의 자연의 일부인 바다는 그곳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며 분노의 상징이고 슬픔과 고통과 고독의 근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작가가 묘사하는 이곳의 자연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과 식물들 그리고 꽃의 향기로 가득한 갈리시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연의 두 얼굴을 대비적으로 비추고 조명하여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갈리시아 자연의 총체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연 환경묘사와 더불어 갈리시아인들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 유산의 일부인 망자의 장례과정에서 보여주는 가톨릭의 종교의식과 미신적 제의식의 혼합, 갈리시아 어부들의 과도한 음주문화와 주신제나 살주식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갈리시아가 오래되고 심오한 풍속의 땅이고, 미신과 세속적 제의식 그리고 특별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땅이라는 작가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갈리시아는 문화적 종교적인 측면의 고유하고 명백한 특징을 갖고 있는 특별한 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로살리아의 이 작품에 드러나는 갈리시아의 환경, 자연, 등장인물들, 혹은 갈리시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갈리시아의 외적현실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로살리아는 갈리시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언제나 존재하면서도 깊이 있게 조명되지 못했던 자연환경과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 그림으로써 갈리시아적 정체성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참고 문헌

- 박효영,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소설에 나타난 지역성」, 『스페인어문학』 36호, 2005.
- 송선기, 「페레다와 아소린의 작품을 통해 본 스페인 정체성」, 『스페인어문학』 44호, 2007.
- BASANTA, Angel, *La novela española de nuestra época*, Madrid, Anaya, 1990.
- BERAMENDI, Justo G., *El nacionalismo gallego*, Arco Libros, 1997.
- CABALLO Calero, Ricardo, *Aportaciones a la literatura gallega contemporánea*, Madrid, Gredos, 1955,
- CASTRO, Rosalia de, *La hija del mar*, Madrid, Ediciones Akal, 1986.
- CELA, Camilo José, *Mazurca para dos muertos*, Seix Barral, Barcelona, 1983.
- MARTIN, Elvira, *Tres mujeres gallegos del siglo XIX*, Editorial Aedos, Barcelona, 1962.
- MERCER, Leigh, “Shadowing the Gothic: Rosalia de Castro's *La hija del mar* and Benito Pérez Galdós *La sombra*,” *Decimonónica*, Winter/Invierno, 2012.
- NORA, E. G., *La novela española contemporánea*, Madrid: Gredos, 1973.
- PARDO Bazán, E., “Rosalia de Castro y el mito del progreso. Elementos para una nueva política del tiempo”, *Canon y subversión. La obra narrativa de Rosalía de Castro*, (Ed. Helena González Fernández y María do Cebeiro Rábade Villar), Barcelona, Icaria, 2012.
- RUIZ Silva, Carlos. Reflexiones sobre *La hija del mar*. *Actas do Congreso Internacional de Estudos sobre Rosalía de Castro e o Seu Tempo*. Santiago de Compostela Consello da Cultura Galega, 1986.
- ZAVALA, Iris M., “Romanticismo y realismo” en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Barcelona, Crítica. 2001.
- http://www.cervantesvirtual.com/portal/romanticismo/actas_pdf/romanticismo_3_4/mayoral.pdf
- http://is.muni.cz/th/110308/ff_b/Bakalarska_prace.pdf.pdf
- [http://es.wikipedia.org/wiki/D%C3%ADa_de_las_Letras_Gallegas\)](http://es.wikipedia.org/wiki/D%C3%ADa_de_las_Letras_Gallegas)
- https://es.wikipedia.org/wiki/Santo_Cristo_de_Finisterre
- [http://www.fotonazos.es/2013/12/el-santuario-de-nuestra-senora-de-la-barca-en-muxia/.](http://www.fotonazos.es/2013/12/el-santuario-de-nuestra-senora-de-la-barca-en-muxia/)
- http://www.biografiasyvidas.com/biografia/c/castro_rosalia.htm

❖ ABSTRACT

Galician Nature and People as
Seen through *La hija del mar* by Rosalía de Castro

Song, Sun-ki

This study found that *La hija del mar* (1859) by Rosalía de Castro describes, as the background to the work, the lives of Galicians, along with the movement of the sea, scenes of the coast, storms, and lively plants in Muxía, a small city of Galicia and Cabo de Finistere. It was shown that the nature of Galicia, as described in the work, is a beautiful site where fishermen and farmers live among the full aroma of plants and flowers, as well as being a subject of fear to the people there.

Furthermore, it was also shown through the funeral process, along with a depi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unique place of Galicia is part of the traditional heritage that the Galician people have preserved, in which Roman Catholic rituals are mixed with superstitious rites. Moreover, the author shows through a description of the excessive drinking culture of Dionysian rites or Libation rites that Galicia is a land with longstanding and profound folk customs, as well as a special culture.

It was proved that the work is a specific representation of the author's perspective. Thus, Rosalía depicts the lives of peopl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have not been examined profoundly, although they always existed in Galicia. This provides space where the external reality of Galicia and part of the identity of Galicia can be elucidated.

Key Words

Rosalía de Castro, *La hija del mar*, Galicia, natural environment, culture, customs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